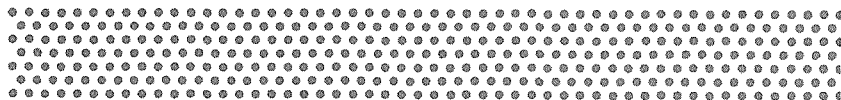


# 石油産業의 구조와 특성



이 자료는 서울大 趙東成교수 편저 「石油産業의 構造와 戰略」이라는 연구논문집에서 편저자가 쓴 두편을 전재한 것이다. 앞으로 3회에 걸쳐 다른 필자의 주요논문도 전재할 예정이다.  
(편집자註)

## I. 머리말

1970년대가 두 차례의 석유위기로 인하여 原油가격 구조의 파행성이 나타나고 그에 따라 시장경제체제가 붕괴된 시기였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1980년대는 석유위기로 인하여 파생되었던 왜곡이 해소되고 파행적 구조가 균형을 되찾아가는 조정기라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증거로서 1980년대의 석유시장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1970년대의 10년 동안에 11배 이상으로 상승한 油價로 말미암아 세계의 1985년도 석유수요는 1980년에 비하여 9%가 감퇴되었다. 반면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OPEC국가들은 국내산업에 대한 무모한 투자정책으로 인해 높은 油價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를 나타내게 되었고, 그에 따라 리비아, 알제리아를 비롯한 일부 OPEC국가들은 OPEC에서 합의되었던 각국별 생산제한량을 무시하고 자국생산량을 증가시키으로써 OPEC의 단결을 약화시키기에 이르렀다. 또한 英國, 멕시코 등의 非OPEC국가들은 높은 油價에 자극받아 原油생산량을 대폭 증가시

켰고, 그 결과 1980년에 세계원유거래량의 45%를 차지하던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1985년에 62%로 대폭 상승하여 같은 시기의 OPEC시장점유율 38%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수요감소와 공급증가라는 새로운 현상으로 인하여 1980년대의 원유시장은 소위 정부판매가격(Government Selling Price : GSP)이라고 불리는 산유국의 일방적인 가격결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지배되던 파행적 구조로부터 소비자의 수요탄력성과 생산자의 공급탄력성에 의하여 지배되는 균형적 시장으로 변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천정부지로 올라 현물시장에서 배럴당 41달러 수준에 도달했던 世界油價는 급기야 1986년 7월에 이르러 10달러 미만으로까지 급전직하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따라 OPEC제국을 포함한 세계각국의 석유정책은 큰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메이저 석유회사를 포함한 개별 석유산업의 차원에서도 기존전략의 검토 및 새로운 전략의 개발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또한 韓國에서도 정부의 정책은 물론 개별석유회사의 적절한 대응전략수립이 과거 어느때 보다도 요청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1980년대 세계석유산업의 정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첫째, 석유정세의 올바른 판단을 위하여 우선 석유산업

에 내재하는 본질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1980년대 석유산업의 구조가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 살펴본다.

셋째, 이러한 환경변화를 맞이하여 세계석유산업이 어떠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는가 알아본다.

## II. 石油產業의 특성

석유산업이란 石油(원유와 석유제품을 포괄적으로 지칭)을 대상제품이나 소재로 하는 산업을 일컬으며 일반적으로 上流部門(upstream)과 下流部門(downstream)으로 구분된다. 이때 上流部門에는 석유의 탐사, 시추 및 생산을 포함시키고, 下流部門에는 수송, 정유, 판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석유화학산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이같이 석유산업이 서로 관련된 여러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까닭에 석유산업은 제품차원과 경영차원에서 각기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들 특성의 내용과 각 특성이 지니는 전략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제품차원의 特性

#### (1) 석유자원의 유한성 및 편재성

세계의 확인원유 매장량은 1984년말 당시 7,072억배럴이다. 비록 탐사기술 및 생산기술의 향상에 의해 생산가능 원유가 계속 증대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原油는 地球라는 땅덩어리의 내부에 존재한다는 유한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확인매장량의 75%가 中東지역에 편재하고 있어 이들 지역의 의사결정능력 및 전략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원유의 유한성 및 편재성은 생산자의 가격조작 가능성과 공급중단 위험성을 상존시키고 있다. 따라서 원유수입국입장에서는 原油의 안정적 확보, 그리고 원유의 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체에너지개발이 필수적인 전략과제가 되고 있다.

#### (2) 석유의 낮은 가격탄성치

美國MIT대학의 석유전문가인 모리스 에이들먼(Maurice Adelman)교수에 의하면 석유는 수요에 대한 가격탄성치가 낮고, 공급에 대한 가격탄성치에도 한계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는 적어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우선 수요측면에서 볼 때 액체위험 물인 석유는 특수한 저장시설이 요구되는 까닭에 가격이 낮아진다고 해서 필요 이상의 소비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동시에 가격이 높아진다고 해서 쓰지 않고 지낼 수 있는 성격의 제품이 아니다. 또한 공급측면에서 볼 때에도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단시일내에 땅속의 原油를 간단히 발견·생산해 낼 수 있지도 않고, 가격이 내린다고 해서 쉽게 油田에서의 원유생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산을 위한 추가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석유의 낮은 가격탄력성은 油價의 폭락·폭등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석유생산국과 소비국 입장에서는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흡수할 수 있는 석유산업의 수직적 통합이나 비축과 같은 전략적 대응책이 필요하게 된다.

#### (3) 석유제품의 連産性 및 동질성

原油를 정제하면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의 제품이 연속적으로 만들어지며 原油의 성상에 따라 이들 제품의 생산비율은 거의 일정하게 나타난다. 또한 원유종류나 생산자의 기술능력 차이에 관계없이 석유제품의 품질은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정유업은 제조업이라기보다 분류업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정유산업입장에서 볼 때 이와 같은 석유제품의 連産性은 개별제품원가의 정확한 계산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동시에 수익성이 좋은 제품만을 선택하여 집중 생산하는 것을 또한 불가능하게 만든다. 또한 석유제품의 동질성은 신규제품개발이나 제품차별화 전략의 구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 2. 經營차원의 특성

#### (1) 자본의 대규모성

석유개발에는 첨단 기술과 오랜 기간의 시간뿐 아니라 거액의 투자가 소요되며 그 성공가능성에 대해서도 커다란 위험이 뒤따른다. 또한 石油를 수송·저장·판매하기 위하여는 탱커, 파이프라인, 저장탱크, 주유시설 등 거액의 설비투자가 필요하게 된다. 精油의 경우 규모의 경제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단위인 하루 10만 배럴 생산능력을 가진 정유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2.5억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석유산업의 각 부문에 대한 거액의 투자소요량은 석유산업에의 진입장벽과 석유산업으로부터의 철수장벽을 동시에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와 동시에 기업은 생산단위당 고정비 배분을 줄이기 위하여 증산을 추구하게 되어 필연적으로 시장점유율 쟁탈전의 경쟁을 펴게 된다.

(2) 수직적 관련성

석유산업의 경우 수직적 제단계에 있어서 한 단계의 불안정성은 그대로 연관단계의 불안정성으로 연결되어 유풀설비에 따른 기회비용이나 막대한 재고비용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석유산업에서의 경제성은 단위공장의 규모(economy of scale)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원유생산—수송—정유—판매로 이르는 사업의 범위(economy of scope)를 일관성있게 유지하는 데에서도 찾아야 한다.

이와 같은 석유산업내에서의 수직적 관련성은 석유회사가 가동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수직적 통합을 유효한 대안으로 채택하는 일반적 경향의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

(3) 정부의 적극적 개입

석유소비국에 있어서 석유산업은 公共産業과 軍需·防衛産業의 성격을 가진다. 각종 석유제품은 거의 모든 산업에 연료 또는 원료로 사용될 뿐 아니라 모든 가정 및 교통기관에 가장 대표적인 연료의 역할을 담당하며,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도 지대하다. 또한 근대 이후의 세계사에 나타난 모든 주요전쟁에서 석유자원을 더욱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가 승리하였다는 사실은 석유산업이 가진 軍需산업 더 나아가 防衛산업으로서의 성격을 웅변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 정부에서는 석유산업에 대한 육성 지원 및 규제를 위하여 각종 정책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석유산유국의 경우 석유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지대하다. 특히 대부분의 OPEC국가에 있어 석유생산은 국가재정의 주요 원천이 되고 있으며, 석유산업은 대내외적으로 국력을 나타내는 기간산업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산유국 정부에서는 석유산업에 관련된 각종 정책을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외교적 차원에서 채택하고 있다.

석유에 관한 각국 정부의 긴밀한 이해관계 및 이로 인한 정책적 개입은 석유산업으로 하여금 순수한 경제적 효

율성만을 추구하는 데 어려움을 제기한다. 따라서 다른 어느 산업에서보다도 석유산업내에서의 기업경영은 여러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신축적인 자세를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게 된다.

### Ⅲ. 1980년대 석유산업의 구조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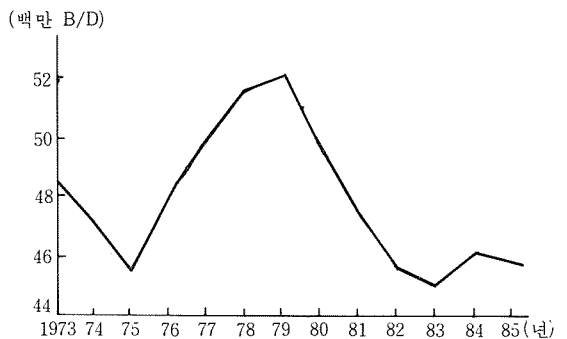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석유산업의 구조는 1970년대에 서 경험한 바와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의 변화는 석유소비의 감소, 非OPEC산유국의 산유량 증가, 원유거래방식의 변화, 그리고 정제시설의 감축 및 설비고도화라는 네 가지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

#### 1. 석유소비의 감소

1945년 하루 700만 배럴에 불과하던 석유소비량은 1973년 4,700만 배럴로 7배의 증가세를 실현하여, 같은 기간의 에너지 소비증가분의 대부분을 충당하였다. 제1차 석유위기 직후인 1974~75년 약간의 감소추세를 보인 석유소비량은 1976년부터 다시 급증하여 1979년에는 5,200만 배럴로 사상최고의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석유위기 직후인 1980년부터 석유소비량은 본격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그림 1-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1983년의 세계경기회복에 힘입어 일시적인 증가현상을 보인 것 이외에는 연 5~6%의 수요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석유소비량이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대폭 감소하게 된 원인은 세계경제성장의 둔화, 에너지 집약도

<그림 1-1> 세계 석유소비추이(자유세계)



자료: 「석유협회보」, 1986.

의 감소, 그리고 타 에너지에 의한 석유대체라는 세 가지로 집약시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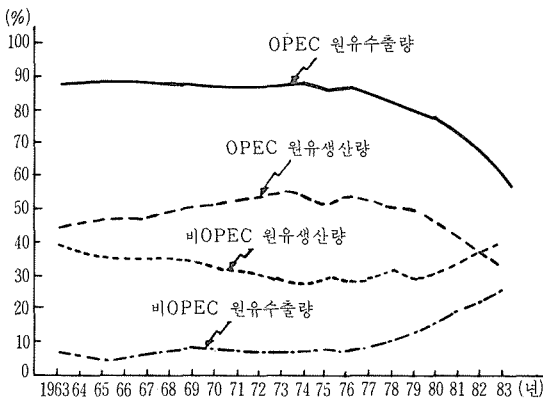
우선 세계경제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 1983년의 「반짝경기」를 제외하고는 계속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80~85년의 세계연평균 성장률 3.1%는 1970년대의 4.4%에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세계경제는 질적인 면에서도 큰 변화를 보였다. 즉,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이다. 또한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내에서도 에너지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투자 및 장비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경제전반적으로도 에너지 소비절약의 의식구조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대체에너지 개발은 거의 모든 소비국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한 정책대안이었으며, 특히 發電燃料부문에서 유연탄, 원자력, 가스에 의한 대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石油의 낮은 가격탄력성을 고려할 때 제2차 석유위기 이후 소비국들이 석유소비감소를 위하여 노력한 효과는 아직까지 100% 나타났다고 볼 수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이다. 반면 석유소비의 증가는 石油가격이 인화된 이후에도 한참 후에나 나타날 것이므로, 결국 앞으로 당분간 석유소비의 증가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 2. 非OPEC국가들의 산유량 증가

석유소비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非OPEC국가들의

〈그림 1 - 2〉 세계 석유시장에서 차지하는 OPEC, 비OPEC 국가들의 점유율 추이



주 : 비OPEC는 공산권 제외.

자료 :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산유량은 계속 증가하여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2년부터는 OPEC의 석유생산량을 능가하게 되었다.

특히 英國은 1975년 北海에서 처음으로 原油를 생산한 이래 1986년에는 하루 250만 배럴 수준으로 세계 5위의 대산유국으로 부상하였다. 멕시코 역시 1973년의 하루 47만 배럴에서 1985년 270만 배럴로 생산량을 대폭 늘렸으며, 그 외에도 노르웨이가 하루 90만 배럴, 이집트가 하루 90만 배럴수준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非OPEC국가들이 산유량을 늘리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까닭이다.

첫째, 1970년대의 高油價는 각국의 석유자원개발 노력을 강화시켰다(세계 등에 의한 지원).

둘째, OPEC제국의 정치적 불안정, 상황변동의 원칙에 의한 잦은 정책변화로 인하여 석유소비국은 안정된 원유 공급선으로서 OPEC보다 非OPEC국가들을 선호하게 되었다.

셋째, 원유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래 경제성이 없던 油田들과 2차회수등의 투자가 채산성을 가지게 되었다.

넷째, 석유산업의 수익구조가 석유제품가격의 지속적 약세, 原油價의 下方경직성 등에 의해 下流部門의 적자, 上流部門의 흑자구조로 형성되었으며, 따라서 上流部門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이루어졌다. 특히 中東에서 원유생산권을 잃은 메이저 석유회사들은 다른 지역에서의 上流部門 투자에 집중하게 되었다(예 : 1985년 엑슨의 총투자액 중 70%가 상류부문에 투자되었다).

다섯째, 非OPEC산유국은 歐美등 대소비지에 근접한 지리적 잇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非OPEC산유국들이 원유생산의 주도권을 쥐게 됨에 따라 세계석유시장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첫째, OPEC산유국들이 생산량 할당과 감소으로 가격유지를 도모하는 동안 非OPEC산유국들은 원유의 高價와 석유제품의 低價로 허덕이는 정유회사의 요구에 대응하는 전략으로서 생산된 원유를 탄력적인 가격에 의해 판매함으로써 현물시장의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둘째, 국제원유시장의 분극화 현상을 가져왔다. 즉, 수송거리에 의해서 中東의존체제를 탈피해 가는 大西양석유시장(美國, 北西유럽)과 中東의존체계의 탈피가 용이하지 않은 極東석유시장의 양분현상이 나타났다. 1984년 세계의 4개루트별 석유이동량은 1979년을 100으로 잡을 때

中東—西歐가 35, 中東—極東이 69, 中南美—美國이 88, 中東—美國이 29로서, 中東에서 수에즈以西의 이동이 격감된 것을 알 수 있다.

세계, OPEC가 한계공급자로 지위가 격하되었다. 예컨대, 석유회사의 원유선택의 우선 순위가 ① 자사개발원유, ② 非OPEC원유, ③ 현물원유, ④ OPEC원유의 순으로 나타난 것이다.

네째, 대량소비국의 에너지 자급노력, 원유선택순위의 변화, 大西洋시장의 中東이탈 추세는 세계 석유무역량을 1979년 세계전체 무역량의 49.4%에서 1984년 35.2%로 감소시켰다.

다섯째, 그러나 非OPEC산유국들의 석유생산 증가추세는 매장량의 한계에 의해서 1980년대 말경부터 감소추세로 발전될 전망이다 따라서 1990년대에는 다시 OPEC가 시장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3. 원유거래 방식의 변화

#### (1) 현물거래의 급증

1980년대 석유의 공급과잉이 발생하여 原油에 대한 지배권을 OPEC가 상실하면서 원유거래 방식도 종전의 G—G, D—D에 의한 장기공급계약 방식이 퇴조하고 단기적 원유조달방식인 현물거래가 급증하였다. 즉,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非OPEC산유국이 高油價, 低석유제품가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석유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탄력적인 가격운용을 한 결과 현물거래량이 증가하였는 바, 피트롤리움 이코노미스트(Petroleum Economist)지의 추정에 의하면 1970년대 중 세계전체 거래량의 3~5% 수준에서 최근에는 50%의 수준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물거래의 급증은 석유의 공급과잉에 따라 안

정적인 석유확보를 위한 장기공급계약의 유인이 감소하고, 현물가격이 公示油價보다 싸며, 선택적인 원유조달이 가능해졌기 때문이었다.

또한 1970년대 OPEC의 산유시설 국유화에 의해 석유산업의 上流部門과 下流部門을 통합하여 사전조정기능을 수행하던 메이저석유회사들이 이와 같은 저능수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양부문간의 수급격차를 메워줄 기능이 필요해졌으며, 그에 따라 현물거래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현물가격은 시장에서의 수급, 즉 시장기능에 의해 가격이 형성된다. 따라서 현물거래의 급증은 국제석유시장이 종래의 OPEC지배에서 벗어나 경쟁체제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현물가격은 다음의 관계에서 보듯이 OPEC의 가격인하 압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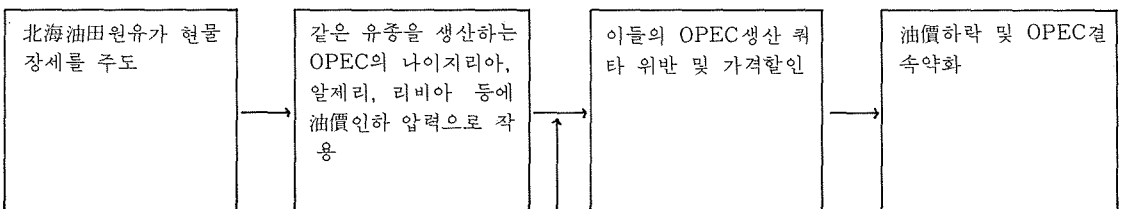
#### (2) 원유선물시장의 성립

원유선물시장은 1983년 뉴욕에서 개설되었고, 1986년에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하루 3천만 배럴수준을 기록하여 전 세계원유생산량의 절반수준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원유선물시장은 가격변동의 위험(risk)을 헷징(hedging)하기위한 수단으로 성립되었으며, 이는 석유상품이 종래의 정치상품에서 시장 상품으로, 그리고 특수상품에서 일반상품, 금융상품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3) 넷트 백(Net Back) 판매방식의 등장

넷트 백 가격이란 석유제품의 가격에서 原油의 가격을 역산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원유 1배럴에서 생산되는 석유제품의 소비자가격에서 수송비와 정제비 및 정유회사



나이제리아, 알제리, 리비아 등은 경제사정의 악화로 원유감산을 수행할 형편이 못됨.

들의 적정이윤(2%)을 공제한 가격이다. 종래에는 정유회사들이 구입할 油種을 결정하기 위한 판단자료의 하나로 이용되어 왔으나 1982년부터 산유국들이 석유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가격할인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여 최근에 와서는 거의 대부분의 산유국들이 동가격을 석유수출가격으로 이용하고 있다. 1985년 9월부터는 사우디아라비아까지도 네트 백 방식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휘발유, 경유, 중유 등의 석유제품가격은 1970년대부터 석유제품시장에서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었다. 따라서 그 동안 석유제품가격과 무관하게 결정되던 원유가격이 석유제품가격과 관련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원유시장에서도 OPEC의 지배권이 무너지고 시장경쟁원리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런데 네트 백 가격에 의한 판매는 단기적으로는 산유국의 석유수출수입을 늘려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油價인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네트 백 판매방식하에서는 모든 정유사들이 적정이윤을 보장받게 되므로 석유제품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생산을 늘려갈 것이며, 이는 석유제품가격을 더욱 하락시키고 연쇄적으로 油價에도 인하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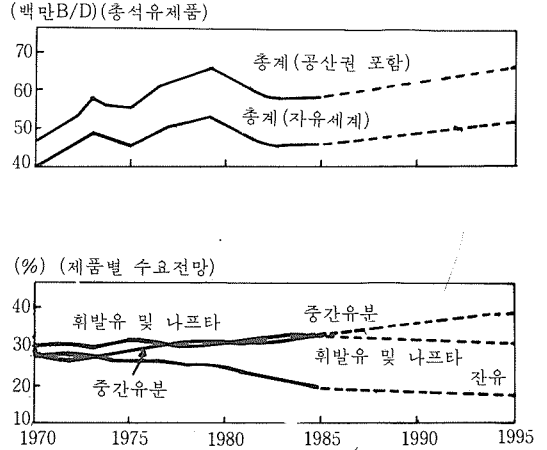
4. 정제시설의 감축 및 설비고도화

석유제품소비는 <그림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 에너지 개발, 에너지의 효율화사업 등에 의해 1970년대 말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수요구조도 중질제품에서 경질제품으로 질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석유제품의 대체가 석탄, 원자력 등과 같이 대체가 용이한 에너지원이 있는 중질연료유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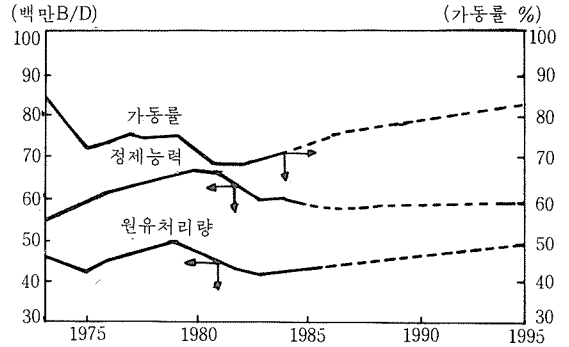
세계 정유업계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외형적 성장보다는 수익성개선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림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제시설감축현상이 歐美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1980~85년 기간중 10.3% 감축되었다. 그에 따라 세계정유산업의 가동률은 1973년의 84.7%에서 1981년에는 67.5%로 크게 낮아졌다가 이러한 시설감축에 힘입어 1985년에는 70%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소비의 경질화추세에 따라 석유업계에서는 중질유 분해시설에 대한 투자가 증가되고 있어 자유세계전체 정

<그림 1-3> 세계 석유제품 수요전망



<그림 1-4> 정유공장 가동률 추이 및 전망



유시설에 대한 중질유 분해시설의 비중이 25%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질유 분해시설의 증가는 소비의 경질화 이외에도 기존확인 석유매장량의 55%가 중질원유이기 때문이다.

IV. 석유업계의 대응전략

이와 같은 석유시장의 변화에 대하여 OPEC와 메이저석유회사들, 그리고 소비국들은 다음과 같이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 1. OPEC의 전략

증산→원유가격하락→OPEC 수입감소→증산이라는 악순환 속에서 OPEC전체는 수입감소로 인하여 경제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OPEC전체는 1982년 이후부터 경상수지 적자국으로 전락하여 1986년도에 경우 그 적자폭이 700억 달러 수준에까지 이를 전망이며 대외자산도 급격한 감소를 보여 그 절정을 이루던 1981년의 4,100억 달러수준에서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위기하에서 OPEC에서는 油價회복, 하류부문통합, 그리고 脫石油라는 세 가지 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1) 油價회복전략

1985년 제76차 OPEC총회에서 「적정시장점유율의 확보」를 선언하고 판매경쟁을 벌임으로써 油價가 폭락하자, OPEC는 다시 非산유국과의 협상, OPEC내부의 결속을 다짐으로써 다시 감산에 의한 油價회복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략은 각국간의 경제사정이 현저히 다르고 석유산업이 경제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그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다. 非OPEC중에서도 中共, 노르웨이 등은 감산에 동조사를 표시하고 있으나 가장 큰 산유국인 英國, 美國 등은 독자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OPEC내부에서도 사우디 아라비아의 매장량기준 쿼타배정, 이란·이라크의 경제여건기준, 베네수엘라의 인구기준 배정등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2) 下流部門 통합전략

OPEC는 석유산업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통합전략의 일환으로 1970년대 중반부터 석유산업에서의 노우하우, 막대한 석유자금을 배경으로 부가가치의 창출, 공업화 및 원유생산제한 쿼타의 회피방법으로서 수출용정유공장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 왔으며 이에 따라 OPEC의 석유제품 생산량이 세계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3년의 6%에서 84년에는 8.5%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와서는 下流部門이 치열한 경쟁과 함께 침체현상을 보이게 되자 종래의 부가가치추구보다는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수준의 안정화를 위한 판매망의 확충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한편, 석유화학분야에서도 진출경향이 나타났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이미 메탄올을 생산하여 1983년부터 수출을

개시하고 있으며 그 생산능력은 에틸렌 기준으로 세계시장의 약 5% 수준에 달하고 있어 향후 석유화학산업의 시황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산유국의 하류부문 진출은 하류부문 본래의 치열한 경쟁, 장기적인 불황 등을 고려할 때 세계석유산업의 평형상태에 또 하나의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다.

#### (3) 脫石油 전략

석유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한 정책추진 노력의 움직임이 OPEC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쿠웨이트, 바레인은 금융입국을, UAE는 脫石油산업으로서 알루미늄제련업에 힘을 쏟고 있다. 이의 결과로 OPEC에서 非石油부문은 1980년대에 석유부문이 마이너스 성장(GNP기준)으로 돌아선 것과는 달리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 2. 메이저석유회사들의 대응전략

과거 두 차례의 석유위기를 오히려 수익향상의 전기로 이용했던 메이저석유회사들도 油價하락을 예기치 못하였고, 그 결과 수익악화의 대처방안에 부심하고 있다.

1975년 후반부터 산유국들에 의한 사업참가 및 국유화가 진행됨에 따라 원가가 낮은 持分原油를 상실하면서 메이저석유회사들이 최초로 선택한 전략은 자원·에너지의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인식에 근거한 석탄, 유혈암(油頁岩), 유사(油沙)등이 에너지자원이나 비철금속 등의 광물자원의 획득과 개발에 대한 투자였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는 현재 비철금속가격의 하락, 대체에너지의 경제성 감소 등의 요인에 의하여 수익성악화 및 불량자산의 증가를 가져왔다. 한편, 자원·에너지에 대한 투자외에도 걸프의 서커스, 모빌의 소매 및 포장회사, 엑슨의 사무기기·전기회사 등에 대한 투자와 같이 비에너지관련 부문에의 신규투자에 의한 다각화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석유산업의 성숙화에 대응코자 하였으나 이 역시 실패로 끝났다.

198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高油價 시대를 맞이하게 되자 메이저 석유회사들은 종래의 다각화전략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원유자원이라는 인식하에 상류부문에 대한 투자에 다시 집중하였으며, 이같은 투자는 주로 매장량이 풍부하고, 대소비지에 근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면에서 우대조치가 많은 美國과 英國의 北海油田에

집중되었다.

한편, 1970년대의 다각화전략의 실패 및 1980년대 석유 수요의 감소추세에 직면하여 유류자산 및 불량자산이 늘어남에 따라 석유회사의 주가가 실제가치 이하로 폭락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주식매입에 의한 기업합병을 통한 기존유전의 확보전략이 추구되었다. 특히 1984년에는 소칼의 걸프 매입, 텍사코의 게티 오일 매입, 로얄더취셀에 의한 셀(美國)의 완전 자회사화 같은 매입활동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여 석유회사의 경영자는 기업의 존속을 위해 주가를 높이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전략은 자산주의 매입상각, 수익성이 악화된 下流部門의 축소, 채산성이 없는 지역에서의 철수, 투자규모의 감축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되었으며 자금흐름(cash flow)의 증가를 전략의 최대 당면목표로 설정하게 되었다.

### 3. 소비국의 대응전략

석유소비국은 油價인하가 석유수요증가에 연결됨으로써 제3의 석유위기가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하에 수요 증가 억제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전략에 따라 석유소비세 인상(IEA 25개국 중 8개국), 비축의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油價하락이 소비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긍정적 효과도 있게 되는 반면 세계경제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산유국의 경제불황의 파급위험 및 외채위기에 따른 국제금융질서의 붕괴에 대한 염려에서 油價를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특히 美國의 경우, 국내 석유업계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油價의 적정선 유지를 위한 영향력의 발휘가 예상되고 있으며 美國·日本등 선진국의 고위당국자들도 산유국을 순방하며 油價의 안정선 유지를 촉구한 바 있다.

## V. 맺음말

1980년대 석유산업의 구조적 변화는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요약되어진다.

### (1) 수급조건의 변화

에너지의 탈석유화에 의해 공급과잉현상이 초래되어 油價하락현상이 발생되었으며 세계 각국의 석유의존도는 급격한 하향추이를 시현함으로써 석유로부터 독립적인 경제구조로 변화되어지고 있다.

### (2) 시장기능의 회복

현물시장, 선물시장의 발달과 네트 백 판매방식에 의한 거래의 실현으로 油價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 헷징(risk hedging)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설정되는 시장경제원리가 석유시장을 지배하게 되었다.

### (3) 석유상품의 일반 금융상품화

특수상품으로 정치적인 무기로까지 사용되었던 석유가와 같은 제변화에 따라 일반상품 및 다른 거시경제 변수—금리, 환율—등에 연동되어 변동하는 금융상품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1980년대는 정보화사회로 일컬어지는, 정보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어지는 시대이다. 국제 석유시장의 재구조변화는 석유를 다른 경제정보와 밀접히 연결시키는 성격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석유정세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석유의 수급문제뿐만이 아니라 상품시장에서의 가격형성요소인 선물시장의 거래구조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금리, 환율인플레이 등과의 관련 등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

가정에서 뿌린 정직

사회에서 꽃핀 신뢰